

日本の 畜産 인테그레이션

— 부로일러를 中心으로 —

농협중앙회 조사부

1. 부로일러부문의 인테그레이션 성립

일본의 경우를 보면, 식육유통 특히 돈육의 유통에 있어서는 인테그레이션(Integration)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새로운 시장구조가 성장하여 중앙도매시장 이상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테그레이션은 부로일러를 비롯하여 육돈·계란 및 육우를 대상으로 전개되어 온 것이다. 여기서는 우선 부로일러에 있어서의 인테그레이션의 성립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부로일러의 경우, 전후에 있어서의 생산과 소비의 전기는 1955년도 전후인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는 전전부터 관서에서 약계로 불리어지는 비육계를 중심으로, 그리고 관동에서는 채란계의 폐계를 중심으로 계육소비가 나타났으나 식생활에 있어서 이들 계육의 지위는 아직 일반적으로 미약하였다.

육계의 경우에는 소 및 돈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으나 도축(처리) 및 해체기술의 독점, 품질 및 수급에 관한 정보의 독점 등을 통해 판로를 독점함으로써 관동에서는 식조도매상이, 그리고 관서에서는 도소매를 겸하는 대형 계육상이 산지와 소매·고객을 고

정적·폐쇄적인 관계하에 결합시켰다. 도축과정의 제도적 독점이 결여되어 있는 이러한 도매상제 시장구조가 식육의 도매상제 시장구조보다도 훨씬 약체였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1955년도 전후에 비롯한 계육생산의 전환은 우육의 대체품으로서, 혹은 통닭구이 등 새로운 소비형태의 도입으로 급속도로 진행된 소비증가를 기초로 하여 전용품종과 배합사료 이용에 의한 규격품의 대량생산으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계육생산은 최초엔 집단양계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채란계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로서 규모확대가 진행되었다. 이는 동 시기에 북관동·동해·근기북부·중사국 등으로의 새로운 산지확대가 산지처리=도체수하를 수반하여 진행되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이들 신흥산지에서는 부로일러가 전혀 새로운 상품으로 최초로부터 채란계를 크게 상회하는 규모로서 개시되었던 것이다. 종래의 생조출하에 대신해서 산지처리가 개시된 것은 집하된 생조를 처리하여 도체로 변형시키고, 이를 다시 얼음과 더불어 상자에 넣어 출

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처리장이라는 유통 시설이 신규로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인티그레이손의 형성도 이러한 유통 시설의 소유와 관리운영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부로일려생산의 전개는 수입사료곡물을 원료로 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 거대한 신규수요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배합사료 도매에서 오는 거래의 이윤을 목적으로 이미 사료자본을 계열화시키고, 그것의 원료수입과 제곱원도매를 담당해 온 종합상사가 동 분야에 진출하여 사료자본 지배하에 있는 사료상(특약점)에 처리장을 개설하게 되었다. 종합상사는 사료판매를 확대할 목적으로 소비지의 식조도매상·계육상과 사료상간에 도매거래약을 매개·알선하였다.

이러한 계약을 받아 사료상은 연간 일정 내지 최저보상의 가격보증을 조건으로 농가를 조직하여 부로일려생산에 착수하도록 하였다. 농가는 가격보증의 대상으로서 지정된 사료의 이용이 의무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것이 부로일려계약생산의 시초였는데, 그후 얼마 되지 않아 농가의 이용의무에 종합상사가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일대잡종의 병아리가 추가되었다. 이 때문에 종합상사는 미국의 육종업자와 합작투자로 원종계장을 설치하고 각기의 부화장을 계열화시켰다.

이리하여 우선 산지에 있어서 부로일려 생산의 계단계를 사료상 산지도매상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임을 기적으로 통합한 종합상사는 다음으로 소비지에 있어서의 도소매 계단의 통합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의 형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계열의 도매회사를 창설하여 일반계육상에 대한 도매를 비롯하여 다시 계육상의 체인화를 추진한다.
- ② 계열 식육가공자본과 제휴하여 동 가공자본이 조직한 정육상체인내의 도매를 개시한다.
- ③ 슈퍼마켓트와 제휴하여 이에 대한 도매를 증가시킨다.
- ④ 계열관계에 있는 호텔이나 음식점 등 대

량소비처에의 진출을 도모한다.

이와 같이 소비지에서의 통합이 다양한 형태를 취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은, 소비지단계의 계열화가 산지단계와 같이 원활하고 단선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산지의 도단계를 거의 완전히 통합한 종합상사가 소비지에 있어서 도매단계를 직접적으로 장악 즉, 각 인티그레이손이 각 단계를 완전히 분할 지배하는 데 성공하고, 또한 도매계단과 소매단계간에 일정한 계열관계를 형성했을 경우에는 인티그레이손이 스스로 독자적인 가격형성력을 지니고 1개의 시장기조로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인티그레이손은 부로일려에 있어서도 가격형성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다.

2. 인티그레이손의 전개와 그의 특질

부로일려 인티그레이손은 그의 통합을 소매단계로 진출시키려고 하였을 때, 슈퍼마켓트와의 제휴에 있어서 계란 인티그레이손과 계열 식육가공자본과의 제휴에 있어서 식육 인티그레이손과 교착하였다.

이미 아는 바와 같이, 계란은 1965년경으로 부터 포장란의 형태로서 슈퍼마켓트와의 소매가 증가하였는데, 포장란에 있어서는 품질의 표준화, 특히 크기와 선도가 중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생산자나 생산자와 직결된 소비자 계란도매상 등이 선별·포장센터를 설치하여 슈퍼마켓트와 직결하는 인티그레이손을 개시하였다.

계열 도매회사를 통해 대형슈퍼마켓트에의 공급을 개시한 종합상사도 선별·포장센터를 구비한 수십만수 규모의 직영농장을 조성하여 슈퍼에 대한 포장란 공급을 개시함으로써 계란 인티그레이손에 참여하였다. 물론 이러한 종합상사의 중기에는 사료판매확대가 개재되어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 슈퍼마켓트의 공급을 직접적인 계기로 하여 다시 직영의 대규모생산의 형태로 개시되었다는 것이 부로일려 인티그레이손과 상이한 점이다. 이는 계

관유통에 있어서는 계통농협이 이미 최초로 부터 영세한 생산농가의 판로확보와 사료공급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데에 기인하고 있다

한편 식육에 관해서는 돈육을 중심으로 식육가공자본이 소위 식육센터와 자기의 산지공장에서 생산한 규격부분육을 소비지에 조직한 정육상체인에 직송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당시의 식육가공자본이 햄 및 소시지의 원료에 해외로부터 수입한 양육과 조육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 식육수입 담당을 목적으로 한 종합상사는 이미 대형식육가공자본을 제일화시켰다 이리하여 종합상사는 계열식육가공자본이 조직한 정육상체인을 부로일리의 소매경로로서 이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부로일리에서 비롯된 인티그레이손은 이상과 같이 전개되었으나 이의 특징은 농업생산(부로일리 사육)을 기축으로 농업자재(사료·병아리)의 생산과 공급,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부로일리의 처리·해체·도소매)을 종적으로 연결시키는 자본 내지 기업의 결합형태에 있는데, 종속기업은 일반적으로 자회사 내지 계열회사나 장기특별계약 관계하의 농여였다 이것이 소위 수직적 통합이나 일본의 축산 인티그레이손은 이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종합상사와 사료상이 통합주체로 된 것은, 수입사료곡물에 의한 배합사료에 전면 의존하고 있는 歪曲된 축산구조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歪曲된 축산구조를 기초로 하는 축산의 생산력 및 소농경영의 대항 즉, 농민층분해의 일정한 진행을 전제로 하는 동시에 동 진행을 촉진시키면서 인티그레이손에 의한 농가의 파락과 생산과정에서의 진출이 진전되고 있다. 또한 슈퍼마켓의 진출과 종합상사에 의한 슈퍼의 계열화에 있어서도 소매단계에 추적되어 있는 가족경영과 영세기업의 도태와 재편이 전체인 동시에 결과로도 되어 있다

이러한 인티그레이손에 의한 개존 생산·유통관계의 재편성은 집하·하수·도매의 각단계에서의 계통농협과 상업자본과의 대항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사료자본과 식육가공자본

의 집중집적과정에 있어서도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

문제는 국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종합상사에 의한 사료자본과 식육가공자본의 계열화, 합자원중계농장의 설립과 부화장의 계열화가 사료곡물·사료식육·원종계 등의 해외 의존체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와 더불어 종합상사가 농산물수입, 특히 발전도상국을 중심으로 농산물개발수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 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축산인티그레이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인티그레이손은 전체적 구조면에서 파악되어야 하는데, 특히 축산물의 유통과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물적 유통형태의 변화로서 나타나고 있다. 즉, 종래와는 전혀 상이한 수송형태의 농산물, 예컨대 부로일리의 경우 도체 해체품, 식육에 있어서의 부분육, 계란의 경우 포장란 등이 대량으로 도매상제 내지 중앙도매시장의 시장구조를 구성하는 수단계를 후회단축하여 유통되게 된다 더구나 경제적 관계에 있어서도 중앙도매시장단계의 시장구조하에서는 중앙도매시장의 내부와 전후에 위치하는 각 경제적 주체가 가격으로 매개된 매매관계에서만 결부되는 자유로운 관계를 이룩하였으나, 이에 대해 인티그레이손의 경우에는 출자 및 장기계약 등 근대적 형태로 결부된 고정적·폐쇄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복수의 인티그레이손이 시장을 거의 완전히 지배했을 경우에는, 그들 사이의 경쟁과 협조를 전제로 비용 프라스 일정이윤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거래가 인티그레이손을 구성하는 각 단계간에 일반적으로 행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가 더해졌을 때 인티그레이손은 하나의 시장구조로 완결되는 것이다.

부로일리 인티그레이손은 불적 유통형태로서는 거의 완성에 가까우나 가격형성 기능을 아직 완비하지 못하고 있다.

3. 식육인티그레이션의 전개

일본에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생산이 일반적으로 개시된 것은 명치시대에 들어온 후이다. 그러나 식육가공산업이 일본에서 기초를 다지고 그의 생산을 본격화한 것은 소화초기였다.

특히 전후의 생산소비의 증가는 괄목할 만하여 전전 2,000~3,000Mt에 불과했던 식육가공품의 생산량도 1955년도에는 26,000Mt에 달했다. 즉, 1940년대 중반이후에는 군용수요가 없어진 말이 대량으로 도축되었는데, 이와 같이 安價한 馬肉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햄대용품 즉, 프레스·햄이 당시의 저임금하에서 국민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어육소시지가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은 약간 지연되어 1953년도 이후이다. 이리하여 프레스·햄을 무기로 부활한 식육가공자본은 1955년 경우로부터 대관을 무대로 하는 격돌중에서 대형의 과점체제의 기초를 구축하였으나 1960년대 전반부터 동 생산구조에 변화가 초래되었다.

우선 돈육생산의 대규모화와 산지확대를 배경으로 근대적인 대형산지공장의 신설이 지속되었다. 즉, 1960년도의 (구) 죽안축산(주) 鹿兒島공장, 1961년도의 (구) 덕도햄(주) 자성공장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산지공장은 집하한 돈육을 원료로 하여 햄과 소시지를 제조하는 것보다는 생선규격 부분육, 소위 카트육의 생산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였다. 경제고도성장 기에 들어와서도 식육가공품의 소비는 프레스·햄이 중심이었으나 이때부터 식육가공 자본은 그의 원료를 저렴한 노폐면양육과 마육의 수입품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예컨대, 양육의 수입량은 1955년도의 8Mt으로부터 1960년도에는 18,000Mt, 1965 년도에는 54,000Mt으로 급증하였다. 식육가공 자본의 산지공장, 예컨대, 죽안축산의 鹿兒島공장은 1963년도 당시 산지에서 집하한 육돈의 70%

를 규격부분육으로서 경관신·京坂에 출하한 이면에는 식육가공품의 소비가 수입식육을 원료로 하는 프레스·햄 중심이었다는 사정이 있는 것이다

식육가공자본의 부분육 생산에는 자체의 생산공장 뿐만 아니라, 이 무렵 산지에서 정비가 추진되기 시작한 식육센터도 크게 이용되었다. 식육센터의 대다수는 계통농협과 지방자치체를 중심으로 지방식육업자·식육가공자본 등이 참여한 주식회사로서 설립되었는데, 식육 중앙도매시장이 생체하수를 기본으로 하여 발족하였기 때문에 식육센터는 계통농협이 식육 가공자본지향의 지육을 위탁·도축하는 유통시설로 전화되었다

산지식육센터의 설치가 유통기능의 근대화 에 있어서 지니고 있는 경제적 의의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년에 와서 나타난 축육 유통량의 급격한 증가와, 이에 따른 도살두수의 급증에 수반해서 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는 대소비지에 있어서 중앙도매시장 부설의 도장과 종래의 영세·비능률적인 지방도축장만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식육센터의 설치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식육센터는 일반적으로 지방도축장보다도 대규모 시설로서 근대적인 처리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처리능력이 큰 동시에 대량으로 광역에 걸친 집하가 가능하므로 지방도장 시장으로의 육축출하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둘째, 근대적인 도축시설을 보유하고 시육경매를 행함으로써 종래의 상대거래에서 오는 불공정성을 제거하여 거래의 명랑회를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종래에는 산지로부터 중앙도매시장으로 생체의 형태로 출하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식육센터가 설치됨으로써 냉장·냉동시설을 활용하여 지육을 출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수송형태가 지육으로 되면 생체수송에 비해 수송경비가 절감될 수 있으며, 또한 생체수송은 원거리일수록 감량과 사고의 피해가 크지만 지육수송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피해가 상당히 저하된다. 지육유통의 형태가 장래 저온유통체계화할 것이라고 전제할 경우 지육출하로의 전환은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네째, 산지 주변의 축육유통의 단순화를 가늠케 하였다. 이는 종래의 경우 산지내에서 소비되는 축육의 일부가 일단 중앙도매시장을 통해서 유통되었으나 식육센터에서 거래되어 유통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식육가공자본은 집하에 있어서 계통농업과 결부되었을 뿐만 아니라, 산지 가축상의 하청화도 추진하였다. 예컨대 죽안축산 鹿兒島공장에서는 1963년도경에 이미 산지돈상 약 200명이 '죽우회'라고 하는 집하단체를 조직하였다. 농지개혁에 의한 지주별해제, 농협공판의 진전, 식육센터의 정비 및 개량보급원 제도를 위시한 기술지도체제의 완비하에 산지에서 농가지배력과 소비지 식육도매상과의 연결이 끊긴 가축상은 식육가공자본하의 조직되어 계열화되지 않을 수 없었다

식육가공자본이 규격 부분육을 소비지에 직송하기 위해서는 정육상의 조직화가 전제로서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부분육의 생산출하에 재빨리 참여한 죽안축산은 부분육의 배상을 1956년도의 5,800만원으로부터 1965년도의 62억 8,000만원까지 증가시켰으나, 이 과정에서 1964년도에는 볼룬타리 체인 '프리마회'를 결성하여 1966년도까지 그의 가맹점을 1,600점으로 증가시켰다

고도성장기간중 프레스·햄과 생선 부분육을 중심으로 성장해 온 식육가공 업계에서는 1960년도의 죽안축산은 필두로 도청햄(주)·덕도햄(주)·이동햄(주)·안데스햄(주)등 각사의 주식공개가 지속되었는데, 이 무렵 축덕도햄(주)·이동햄(주)·안데스햄(주)등 각사의 주식공개가 지속되었는데, 이 무렵 축산에의 진출을 꾸준히 추진해 온 종합상사는 원료식육의 수입을 담당할 수 있는 식육가공자본의 재편과 계열화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1970년도경에는 종합상사의 주도에 의해서 일본햄(1963년도에 도청햄과 덕도햄이

합병한 것으로서 필두주주는 삼릉상사)·프리마햄(죽안축산의 개칭·국내필두주주는 이등중상사)·이동햄(환흥계)의 3대 메이카와 설인안데스햄(삼정물산계)·환대식품(필두기관주주는 주우상사)의 5사 사집체제가 확립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1970년경의 총매상에 있어서의 생선 부분육의 비율이 프리마햄 및 일본햄의 경우 60%에 가까웠으며, 이동햄의 경우에도 47%에 달했다는 사실이다. 또한 돈육의 총도축두수 중 부분육으로 이용된 비율은 1969년도에 4분의 1일 상회하고 1975년도에는 4할(약)에 달했다. 그리고 1970년도의 경우 7~8%에 불과했던 육우의 총도축두수 중 부분육에 이용된 비율도 1975년도에는 4분의 1(약)에 달했다.

이리하여 육돈유통에 있어서는 도매상계 시장구조의 후퇴와 더불어 생산단계와 소매단계의 조직화 및 규격 부분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물유통태에 의한 양단계의 직결이 종합상사에 계열화된 식육가공자본이라고 하는 개별 독점의 주도하에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 경우의 식육 인티그레이손에 있어서도 가격형성기능을 구비한 시장구조로서의 완결은 아직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4. 인티그레이손과 식육도매시장

유통량에 있어서나 물유조직에 있어서 지배력을 강화한 인티그레이손이 현재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가격형성기능이다.

인티그레이손의 물유통태인 부분육은 주로 지육도매가격으로부터 환산에 의해 평가되고 있으나, 양자의 가격은 반드시 평행되지는 않는다. 이는 부분육의 경우 수급이 부위별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부분육 그 자체로서 독립적인 가격형성이 이룩되는 조건은 결코 적지 않은데, 사실상 중앙도매시장에서도 수입품이 많다고 하나 부분육이 상장되고 있는 것이다.

식육가공자본의 경우는 독립적인 부분육가격형성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소망스러운데, 유통량지배의 점유율은 높아도 직영과 위탁

